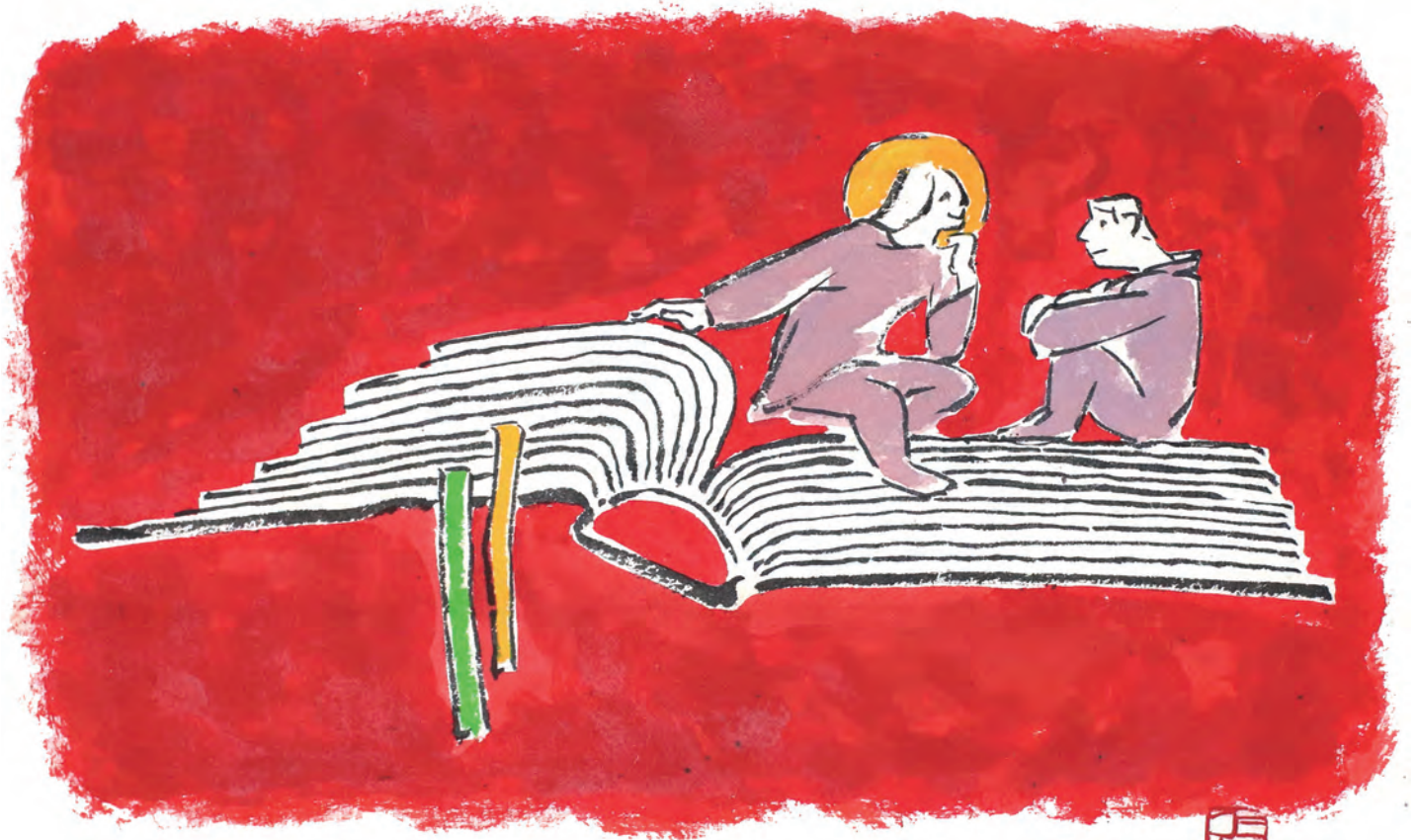


서울 주보

제2604호
2026년 3월 15일(가해)
—
사순 제4주일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 1사무 16,17ㄱㄷ,6-7,10-13L

화답송 | 시편 23(22),1-37,3L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환호송 | 요한 8,12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요한 9,1-41(또는 9,1,6-9,13-17,34-38)

영성체송 | 요한 9,11,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하느님 앞에서 벗는 가면



송정호 알베르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사람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일임을 깨닫고, 또 때로는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보면, 처음에는 모두가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가 어려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거나 말 못 할 아픔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앞에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꾸며 놓은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당신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약함과 한계를 모두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가져오기를 바라십니다. 사회에서는 나의 약함이 숨겨야 할 부족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고 그분의 권능이 활동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의 약함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속 소경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눅 들어 구걸하던 삶에서 벗어나, 바리사이들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당당히 증언하는 제자가 됩니다. ‘안식일’을 언급하며 인간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제1독서에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겉모습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하였던 다윗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제2독서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어찌면 교만일 수도 있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소경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 주고 계심을 체험했을 때’ 내면에서 시작되는 근원적인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부릅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내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림 해설

주님은 나의 목자 | ‘아쉬울 것 없다.’는 말, 선언이 아니라 독백인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질곡과 좌절, 매달림과 거둠이 배어 있는지요. 디셔너리(dictionary)의 두께만큼 시간의 켄을 쌓고, 노을처럼 붉게 타던 열정도 잦아든 그 자리에서도, 다시 또 처음은 시작됩니다. 말씀의 방주에 올라 당신께 귀 기울이면, 몰랐던 기쁨이 널려 있는 일상의 골짜기에 닿습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이번 달 말씀의 이삭은

'SBS 가톨릭 교우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회사 생활 와중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리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최영아 아녜스 | SBS 아나운서

기도 안에서 너를 만나면

“날 위해 기도해 줄래?”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친구의 한마디로 길었던 저의 냉담이 끝났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잘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흥금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 아이를 키우면서 웃고 울었던 시간들, 앞으로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속닥거렸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고해성사에서 말을 잊지 못하는 제게 주임 신부님께서 친구를 위한 기도를 보속으로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비해 기도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9일 기도서를 발견하고 그날부터 54일 동안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가복 하얀 꽃이 바람에 살랑거릴 때 둘이서 여의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은 더운지 옷소매를 걷어 올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무리를 앞서가던 아이를 보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 하느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기도로 고통을 견디고 의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약했고, 예수님의 일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던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늬만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성서 모임반을 모집한다는 사내 공지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지금은 마태오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구절에 생각이 머뭇니다. 기도할 때 막막하고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쌓일수록 어렵기만 했던 기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며 파란 하늘을 볼 때, 보도블록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여린 풀을 볼 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아차리고 짧게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들쭉거리 주체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으면, 괜찮다 하시며 고요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창덕궁 성정각 근처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모두 마쳤겠네요. 홍매화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 하게 되었어요. 대신 친구가 남긴 ‘기도’와 ‘감사’ 두 단어가 씨앗이 되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오늘 밤 기도 안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주님께 이끌어준 덕분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고맙고, 사랑해.”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 9, 7

한컷 묵상

박미정 노엘라 | 작가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칩시다



신윤민 요셉 신부 | 살레시오회

저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본 사명은 인성교육보다 ‘복음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 사회나 학교로 돌아가게 됐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최대한 기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친구들의 자유의지로 예비신자반을 모집하여, 등록된 친구들은 세례를 목표로 수사님과 신부님들에게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반에 들어가면 친구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수도원의 신부님, 수사님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친구들이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수도자인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성시간을 통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는 기도를 하느님께 바칩니다. 자유 청원 기도 때는 친구들이 가족이나 자신의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세계 평화나 교황님 등을 지향으로 제법 진지하게 다양한 기도들을 성숙하게 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친구들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친구들을 통해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청소년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은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 계시며, 산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또 읽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매일 기도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찾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청소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여행이나 명상을 권고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도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더욱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찬란한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단 15분만 기도에 바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보스코 성인은 청소년에게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성당에서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약속하시며, 온종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은 침묵의 하느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란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이며, 또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을 청하는 것입니다.

돈 보스코 성인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심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 또한 “청소년이 기도를 사랑하게 되면 교육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완수한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소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데 쓰는 시간은 가장 잘 사용한 시간이며,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오락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성경 | '성경'은 2026년 한 해에 걸쳐 마태오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복음의 주요 특징부터 시작해, 목상이 필요한 주요한 지점을 짚어가며 독자들과 함께 마태오복음을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아



이우식 베드로 | 성서신학자

마태오복음의 1-2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다루었다면, 3장부터는 그분의 공생활을 다룹니다.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 운동은 당대에서는 획기적인 유대교 혁신 운동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속죄 예물을 바치는 대신에 요르단강에 온몸을 푹 잠그는 예식을 통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마태 3,5-6)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활동을 하셨다고 전합니다.(요한 3,22 참조) 그뿐인가요.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사도 2,38) 하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은 서로 연관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헤로데 임금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을까요.(마태 14,1-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과 동시대에 공생활을 시작했기에 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

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마태 11,18-19 참조) ‘비교’는 자칫하면 ‘오만’이나 ‘비난’으로 둔갑하기가 쉽죠. 사목자나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전임자는 이렇게 했는데 후임자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갈등과 험담이 곧잘 튀어나오지 않던가요?

그럴 때 상대방의 위치와 역할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마태 11,11) 하고 추켜세우십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높여준다고 해서 내 권위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당신께 세례 주기를 주저하자 예수님은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마태 3,15)라고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 바로 우리 신앙인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특별면

다양한 특수 사목, 사도직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전해드리는 특별면입니다. 올해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 소속된 수도회의 수녀님들께서 다채로운 사도직 현장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잃어버린 어린양을 찾아서

어느 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딸이 열 일곱 살인데 임신했어요. 그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저는 두 시간이 넘도록 생명의 소중함과 학교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입소를 결정한 듯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말은 “아직 딸이 어려서 낙태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태중에서 16주를 숨 쉬고 있는 새 생명을 떠올리며, “주님, 저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매달리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학생은 결국 학교에 들어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열일곱에 엄마가 된 그 친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쏟아지는 눈으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저러 왔습니다. “수녀님이 먹일게, 더 자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일게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기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녀님, 00이를 대건 안드레아로 할 거예요.” 엄마가 여러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낙태를 권할 때마다, “지울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아기의 세례명까지 지어 놓고 공부와 양육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오나학교는 청소년 양육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탈북민, 다문화 가정,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 폭력과 학대, 은둔형 청소년

들까지 다양한 삶의 무게를 지닌 아이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며 저는 연민과 공감, 그리고 측은지심을 배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열여덟 살이 된 00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 자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조차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한 가지에 꽂히면 멈출 수 없었고, 어느 날은 필요한 짐만 챙겨 가출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눈물이 먼저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 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한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요.” 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아흔아홉 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잃은 저를 먼저 찾아 주셨고,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를 청하면,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시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구도, 성직자와 수도자도 줄어드는 시대이지만, 창립자 수녀님의 예방 교육 영성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당신에 앞서 보내시며”,(루카 10.1) 이 말씀에 힘입어 저는 다시 응답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지서운 크리스티나 수녀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자오나학교 교장

20세기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의 선구자 장발(루도비코, 1901~2001)

서울주보는 2026년을 맞아 K톨릭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문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유하게 빛어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중 K톨릭 교회 미술 칼럼은 20세기 한국 교회 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한국 교회미술의 발자취를 살펴보세요.



김현화 베로니카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세기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대미술의 실험적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회미술의 현대화',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적 양식과 화법을 종교적 주제와 조화롭게 결합한 '교회미술의 토착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미술의 현대화와 토착화는 1964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전 세계 교회미술이 나아갈 방향으로 선언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에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미술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으로 개척되고 탐구된 것은 장발(루도비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초대 학장님(1953~1961년 재직)의 깊은 신앙심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장발 학장님은 1901년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살 위의 형은 4·19혁명 이후 수반된 민주당 정부의 장면(요한, 1899~1966) 총리님이시며, 조카(장면 총리님의 아들)는 장익(십자가의 요한, 1933~2020) 주교님이십니다.

장발 학장님은 1919년 도쿄미술대학에 입학했다가 1922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미술 실기와 이론을 배운 후 1925년에 귀국했습니다. 장발 학장님은 장면 총리님과 함께 1925년 7월 5일 교황청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복자 79위 시복식'에 조선 평신도 대표로 참석한 것을 기회로 바티칸의 수많은 성(聖)미술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받은 깊은 감동으로 하느님께 교회미술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발 학장님은 <성 김대건 신부님> 등 다수

의 성화를 그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명동대성당에 있습니다.

명동대성당 대성전에 들어서면 제단 뒤편으로 <14사도화>(1926) 성화를 마주 보게 됩니다. 이 성화는 장발 학장님이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보이론(Beuron)의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유래된 보이론 화풍으로 그린 것입니다. 절제되고 간결한 선(線)적 리듬, 밝게 빛나는 선명한 색채, 그리고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구도는 보이론 미술을 참조한 것입니다. 동시에 수직적으로 벽면을 둘러싸듯이 배열된 이 작품의 방식은 석굴암 본존불을 둘러싼 내벽의 10부 입상 부조의 수직적 배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화법과 한국적 전통이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절제되고 엄숙한 조형미가 만나, <14사도화>는 전례를 더욱 장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장발 학장님은 혜화동성당(1960년 준공) 건립을 진두지휘하면서 현대미술의 추상성으로 교회미술의 높은 영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총감독으로서 당대 최고의 현대미술가들을 초빙하여 혜화동성당을 성(聖)스러운 현대미술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기하학적인 건축과 단순하고 절제된 형상의 성모자상, 십자가상 등으로 가득 찬 혜화동성당은 교회미술 현대화의 모범으로 평가받습니다.

20세기 한국 교회미술의 초석을 다진 장발 학장님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주임 사제 임명

성명	현임지
세베로 이사악 신부	명동 본당(2026년 2월 4일부)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호석 신부(작)	노량진수산시장 (준)본당 주임	원소속 복귀 (2026년 2월 27일부)
유영진 신부(작)	작은형제회	노량진수산시장 (준)본당 주임 (2026년 2월 27일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3월 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 2005년 3월 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 2017년 3월 21일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88세)

천주교서울대교구 묘원 미사 안내

교구에서 주관하는 천주교용인추모공원·천주교비봉추모관 2026년 한식 합동 위령 미사는 주님 부활 대축일과 겹치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동 및 도림동에서 출발하는 버스 또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장묘관리팀 02)727-2225

천주교용인추모공원 관리사무소: 1588-9769

천주교비봉추모공원 관리사무소: 031)355-0191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청 알림

시복시성 기원 미사(220회)

때, 곳: 3월 1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3월 21일(토) 10시, 명동대성당 쉼터홀 2층 소성당 /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회사목국 노인복지위원회

시니어카리타스합창단 단원모집(남)

대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72세 이하(베이스, 테너)
연습: 매월 첫째주~넷째주(금) 14시~16시,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 / 문의: 010-3323-3777 총무 번호

2026년 서울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 모집

모집대상: 스카우트 대원 활동에 관심있는 학생(6~18세)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신청방법: <https://naver.me/5cq7QsFP>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3월 31일(화) 23시30분까지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 30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신지형, 이정순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선옥 개인전 <마음속 겨자씨>: 1전시실
지영현 신부 외 6인전 <예술로 찬미>: 2전시실
이지연 개인전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3전시실
전시일정: 3월 20일(금)~29일(주)

1500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 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성진 본당
문의: 02)727-2420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반장 / 교육기간: 4월 15일~5월 31일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교육비: 2만원(4월 8일 접수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환경사목위원회

1) 제8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3월 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2026년 사순시기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바칩시다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은 생태적으로 파괴되어 고통을 받는 생태계 현실을 묵상하고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생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PDF 파일 무상 배포(<http://eco.catholic.or.kr>)
소책자: 권당 5백원 보급 / 문의(신청): 02)727-2283, 2278

3) 제51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창조질서 보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미사 및 수료식
때: 4월 14일~5월 26일 매주(화) 19시~21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마감: 3월 31일(화)까지
신청: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s://eco.catholic.or.kr>)

2026 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20단 묵주기도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내용: 성모 신심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2027이집트오르만이스라엘순례피망: 3월9일~23일(피망지대)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WYD 제3회 나무심기 프로젝트

'온 세상에 생명의 숨결' / 선착순 80명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고
때, 곳: 4월 11일(토) 13시30분~17시, 하늘공원
문의: 02)2230-2050 / 2027 서울 WYD 조직위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서울성모병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생명위원회

1) 유산 치유 프로그램 Plan 'B'

때: 4월 4일~5월 9일 매주(토) 14시~16시
내용: 유산으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금 아이를 갖도록 도움을 줌 / 대상: 유산 경험의 아픔이 있는 신자
곳: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회비: 5만원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727-2351

2)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대상: 행복한 부부생활 및 자연주거법에 관심 있는 자
때: 4월 9일~6월 11일 매주(목) 20시~21시30분(7주간)
강의방식: 온라인(zoom) / 교육비: 부부 8만원, 개인 5만원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727-2351



인준단체 알림

모임

13지구 성령기도회 낚빛정 / 문의: 010-9528-0023
 때: 3월 17일(화) 13시~16시 / 내용: 강의·미사·안수
 곳: 중앙동성당 / 강사: 김현우 신부(인천교구)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3월 2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유명희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5223-7339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2435-3737
 때, 곳: 3월 21일(토) 12시30분~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점심 무료 제공)

사순 감사 피정
 때, 곳: 3월 23일(월) 10시~17시, 인천교구 지혜의샘
 (부천시경인로61-1, 중동역5분거리)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박현민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지혜의 샘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3월 20일(금)~23일(월)·4월 17일(금)~20일(월)·5월 15일(금)~18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3월 27일~29일·4월 5일~7일·5월 9일~11일·5월 15일~17일·6월 19일~21일·7월 3일~5일·7월 10일~12일, 추자도 성지순례 5월 29일~6월 1일·6월 4일~7일·6월 12일~14일·9월 4일~7일·9월 11일~14일 / 문의: 064)732-4702 민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제주성지순례 3월 29일~31일·4월 11일~14일·5월 16일~19일, 엠마오 떠나는 4월 자연순례 4월 7일~9일·4월 16일~18일·4월 20일~22일·4월 28일~30일(추자도포함), 올레길·자연순례 5월 2일~4일·5월 8일~10일·5월 11일~13일·5월 12일~14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낚빛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상도동성당 2층 대성전
 3월 17일(화) 최황진 신부 4월 21일(화) 조남구 신부

따스한 수도권 체험 청년 피정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9816-0072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수도권 부활전례 피정 4월 4일(토) 18시~5일(주일)
 수도권 성체조배 30분 4월 9일(목)·23일(목) 19시30분

피아골 피정-수도원 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5월 23일~25일, 7월 17일~18일
수도원순례	4월 21일~24일 / 유덕현 아바스
부산교구	5월 28일~30일 마산교구 6월 4일~6일
아키타	5월 25일~29일, 북해도 8월 24일~27일, 고토 나가사키 9월 7일~11일, 홍콩·마카오 10월 6일~1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 30일(토)~31일(주일), 6월 27일(토)~28일(주일)
3박4일	4월 23일(목)~26일(주일), 6월 4일(목)~7일(주일)
4박5일	5월 1일(금)~5일(화), 7월 22일(수)~26일(주일)
8박9일	3월 19일(목)~27일(금), 4월 10일(금)~18일(토)
40일	4월 6일(월)~5월 15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제) 4월 10일 10시~15시30분
치유침묵기도 피정(상제입은 감정치유)	3월 20일(금)~22일(주일)
사순 피정	3월 19일(목) 10시~15시30분
시편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4월 24일(금)~26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3월 23일~4월 27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565-3473

3월 23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이정순 수녀
3월 30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이영준 신부
4월 6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이상국 신부
4월 13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최미경 수녀
4월 20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김명숙 수녀
4월 27일(월)	봉헌의 생활화	이순옥 수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02)727-2471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바로로말 헤화나무 4월 아카데미
 삶을 재정비하는 일상 속 영성수련
 강사: 강언덕 신부(예수회)
 때, 곳: 4월 매주(수) 14시~16시(4회), 헤화나무 강연장 또는 온라인 / 문의(접수): 010-9759-0882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시다' 성체조배 봄 영성학교
 때: 3월 18일~4월 15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18일	박원주 신부	3월 25일	이기양 신부
4월 1일	정재건 신부	4월 8일	임병현 신부
4월 15일	'성체조배 이렇게 해보세요' 강의-교구 회장, 파견 미사-대표 담당 사제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4길 14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말씀의 집 성서백주간 모집(성서백주간)
 성경 전체를 통독, 묵상, 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서 본당 내에서 백주간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개설합니다 / 문의: 010-3557-4410
 곳: 말씀의 집(신월동) / 4월 3일까지 선착순 접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추가 모집: 3월 31일(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or.kr)

마틴 슐레스케의 올림의 영성(진애인 심리상담센터)
 하느님을 어떻게 노래할까-가문비 나무의 노래-저자의 영성 / 강사: 한상봉(가톨릭인문 편집장)
 때, 곳: 4월 2일~5월 21일 매주(목) 14시30분~16시30분(8회), 진애인(명동) / 문의: 02)587-9207

바로로말 '영화속 행복찾기' 60대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때: 3월 27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금) 13시30분~17시30분(총8회) / 선착순 10명
 곳: 바로로말 헤화나무 / 회비: 18만원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렛다 수녀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12기 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9184-6280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내용: 일반독서, 인문독서, 영적독서(각 과정 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3월 19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가정선교회 2026년 영성학교
 때, 곳: (화) 12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월3회)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4월 성령, 5월 성모, 6월 성체, 7월·9월 성경, 10월 성가정 학교 / 강사: 박효철 신부, 이창진 신부, 김현우 신부, 최황진 신부, 한영훈 신부, 김연범 신부, 김재덕 신부, 송봉모 신부, 전삼용 신부, 박현민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계좌: 신한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회비: 전액 18만원, 월 3만원 / 현장 접수 가능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가르멜 영성으로 기도를 배우고 싶은 교우
 주최: 전교가르멜수녀회 영성의 집(사직동) / 2년 과정

매월 2-4번째 (36기)	대면 (화) 오전반 10시	문의: 02)737-7764, 010-5969-2989
	대면 (화) 오후반 19시30분	
	대면 (목) 오전반 10시	문의: 02)737-7764, 010-4495-7764
	비대면 (수) Zoom반 20시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지남 학기)
 3월 개강, 각6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 center.jesuit.kr
 더 많은 강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진현 신부
예수의 윤리 이야기-사랑, 고통과 자비, 덕의 지혜	박상훈 신부
그리스 철학의 신학적 동기	김민철 신부
디아스포라 안에 살아 있는 교회의 얼굴 찾기	도윤호 신부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42차) 수강생 모집
 개강: 4월 2일(목) 초급반 10시30분~12시30분·
 중급반 14시~16시 / 접수: 3월 16일~4월 1일
 곳: 가톨릭회관 202호 / 인원: 초급반·중급반 각 15명
 회비: 12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4-579910 북방선교회
 문의: 010-4047-6012 김 안드레아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트리니타스 여성 합창 단원 모집
 때: (목) 10시30분 / 전공자, 유경험자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010-3300-2505

대건캠퍼콰이어 합창 연주 단원 모집
 대건캠퍼콰이어 창단30주년 기념 연주회 합창
 단원 모집 / G.P. Telemann의 음악세계
 때, 곳: 10월 23일(금) 19시30분, 예술의전당 ibk홀
 문의: 010-6356-3347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문의: 010-2633-2025
 활동: (주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3월 22일(주일) 17시 / 명동대성당(단체모
 집관)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 참조

미사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3월 19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3월 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
 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4월 6일(월)~8일(수) 11시, 본원(미아동)
 문의: 010-8684-136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초대강사: 송봉모 신부(영성 특강)
 때, 곳: 3월 16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평화모임 한식 미사(전농동성당)
 평화모임(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6년도
 한식 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02)2241-7841
 때, 곳: 3월 28일(토) 오전 11시, 평화모임(내) 야외
 미사장 /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새천년복음화학교 3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3월 19일(목) 낮 12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안내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
 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
 ·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
 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2026년 부활 평화마켓(가톨릭 플라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때, 곳: 3월 21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 1층 카페 / 문의: 02)338-7832

위급한 여성의 힘
 위급한 여성들의 힘은 5일간 무료입니다
 문의: 010-8563-6875 (문자 부탁드립니다)
 성심이프란치스코수녀회 서울공동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모래놀이치료: 010-7153-0330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counseling-center.catholic.ac.kr)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4월 14일~6월 9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송파구 중대로20길 20)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골'(개봉동성당)
 대상: 사고사나 돌연사로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
 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곳: 4월 8일~5월 27일 매주(수) 14시~17시(총8
 회), 개봉동성당 마리아홀(구로구 개봉로 18길 11)
 3월 29일(주일)까지 접수 / 문의: 010-2568-1379 모은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
 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인터넷 검
 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홈페이지 접속
 문의: 041)934-7758(https://yonaresort.com)

유관단체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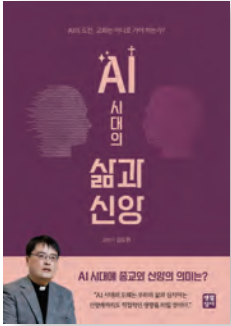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일 세번째(토) 3월 21일·4월 18일·5월 16
 일 15시45분~18시(주일 미사), 햇살사목센터(주최,
 해화로2길20) 성당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역 소재) 직원 모집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요셉의원에서 직
 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668-8432
 병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
 조 후 지원서 접수 / 분야: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3월 21일(토) 10시	서울 가르멜 영성 문화센터(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010-9528-2625 최호정 신부(ocdmose@gmail.com)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5075-3513 권성환 신부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서울 수녀원	010-8563-6875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3월 22일(주일) 10시~15시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 21일(토) 14시	수도원(서울 개화동)	010-3800-157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의방선교회	4월 12일(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AI 시대의 삶과 신앙

김도현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물리학자이자 사제인 저자가 AI 시대가 신앙인에게 미칠 영향과 가톨릭교회의 대응 방안을 소개한 책이다. AI란 무엇이며 기술의 발전이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에 미칠 영향을 AI의 개략적인 발전사와 함께 쉽게 소개한다. 'AI에 관한 쉬운 개설서'로 AI 시대를 살아갈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신간
좋은 삶을 위해 죽음을 묻다

최대한 지음
어크로스 | 336쪽 | 1만9천8백원
문의: 02)6959-3299

철학과 예술에서 구원의 길을 탐구해 온 인문학자 최대한 신부가 서양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죽음을 성찰한 책이다.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명강의 <죽음 이해>의 주요 내용을 담았으며, 고전의 문장들을 저자가 직접 번역해 인용하였다. <파이돈>, <명상록>, <신곡>, <광세> 등 고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삶과 죽음을 고민한 철학을 전한다.



신간
겹옷을 벗어 던지고

가에타노 피콜로 지음
바오로딸 | 192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성경과 영성을 바탕으로 내적 치유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책이다. 바르티메오, 나아만, 라자로 등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다양한 우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가면을 벗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또한 심리적 성찰을 통해 상처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품고 다시 삶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한다.



신간
세상에서 젤 쉬운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

방영미 지음
노란수레바퀴 | 235쪽 | 1만5천원
문의: 010-3240-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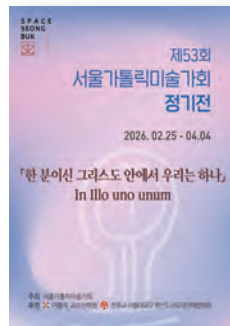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 시대 종말 징후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쉬운 일상어로 풀어낸 대중 교양서이다. 성서 전체를 바탕으로 요한 묵시록을 다루며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자극적 종말론을 넘어 역사와 학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신간
21세기제롬성경주해30 성경의 영감 여성주의 성경 해석

데니스 파르카스팔비 O.Cist. · 바바라 E. 레이드 O.P. 지음 | 성서와함께 | 220쪽
2만1천원 | 문의: 02)822-0125

이 책은 가톨릭교회의 성서학자들이 교회의 성경 해석 전통을 존중하며 쓴 책으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판이다. '성경의 영감'과 '여성주의 성경 해석'으로 구성되어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기록이라는 이중 저자 문제와 정경 형성의 과정을 다룬다. 또한 성경 해석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
제53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일시: 4월 4일까지
장소: 성북동기도의집 1층 '스페이스 성북'
문의: 02)766-3004 / 무료 전시

제53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In Illo uno unum)전이 4월 4일까지 성북동기도의집 1층 '스페이스 성북'에서 개최된다. 교황 레오 14세의 사목표어를 전시 주제로 삼아 회화, 조각, 공예 등 총 85명의 회원이 참여해 교황 말씀에 대한 묵상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 거룩한 성전 출입에 따른 권고사항 ◆

경건한 전례와 기도 공간인 성전출입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및 커피, 음료수 반입금지
- 반려동물 동반 금지 (경내 전체)
- 예의를 갖춘 복장
- 큰 목소리 대화 및 전화통화 금지
- 미사 중 촬영 금지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활동 : 일요일 오후 7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대상 : 1994년생~2007년생 남녀 천주교 신자
 ·연습 : 일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지원방법 : 3/15(일)까지 입단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오디션 : 3/22(일) 예정 ※상세 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문의 : mdsd_eli@naver.com

◎ 명동대성당 아모르봉사단 단원 모집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안내 및 상설고해소 봉사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
 (주일미사 안내봉사는 명동교적 신자에 한함)
 ※1961년생~1995년생, 선착순 0명
 ·접수방법 : 3/21(토)까지 입단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상세 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문의 : amagicqueena@naver.com QR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단원 모집

·활동 :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연습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40대 남녀 천주교 신자
 ·오디션 : 3/22(일) 오후 5시,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기한 : 3/21(토)까지 구글폼 입단지원서 제출
 ·문의 : 010-2633-2025 (단장)

※ 입단지원서 QR 코드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활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문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2월 23일 ~ 3월 8일 : 2,448,700원)
 누계 : 7,788,160,977

익명 : 98,700원 익명 : 50,000원
 박서영 : 300,000원 이정인 : 2,00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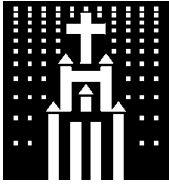
요일	근무시간	비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일요일	07:00~21:00	사무실 폐문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총현회 : 매일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일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일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만천회 : 매일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동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08-2882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흥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품(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18	봉헌 : 421, 342, 220	성체 : 168, 160, 156	파견 : 281
-------	----------	--------------------	--------------------	----------

◎ 2026년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3/16(월)	<교회 안에서의 소통> “명동살이 몇했가요?” Fr.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

◎ 십자가의 길 : 3월 20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 자	시 간	장 소
3월 29일(일)	10:00~20:00	상설고해소 (영성센터 1층 / 옛 계성여고)
3월 30일(월)	11:00~20:00	
3월 31일(화)		
4월 1일(수)		

- ※3/30(월)은 성직자·수도자 및 모든 신자를 위한 고해성사로 진행
- ※상설고해소 휴무 : 4/2(목)~4/6(월)
- ※상설고해소 재개 : 4/7(화) 11:00부터
- ※명동교적신자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

◎ 2026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 견진성사 : 5월 24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교리시간 : 4월 12일 ~ 5월 17일 (매 주일) 6주간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6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 신청대상 :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신자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함)
☞2026년 1월 새 영세자까지
- 교리장소 : 포스트홀 (문화관 2층)
-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3월 29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월요일 휴무
-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하느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편에서 죄를 범하고 하느님을 등진 일은 수없이 많아도 하느님 편에서 인간을 버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추모 미사, 1983/9)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당신 몸과 피를 주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과분한 그 사랑에 어떤 응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 2026년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장소 : 3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 집결지 : 낮 12시 30분까지 성모동산 집결 후 이동
- 대 상 : 명동 레지오 마리아 전 단원
- 준비물 : 목주, 각 Pr. 단기 지참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 배움의 열정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엘리사벳 장학회에 정성 가득한 후원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3월 세례예식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229,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2-3/8).....26,780,000
- 사순 제 3 주일 헌금.....42,729,151
- 감사헌금 (3/2-3/8).....8,196,000
- 강 디모테오 / 김 라파엘 / 김 실바아 / 김 안나 / 박 이사벨라
백 올리아나 / 심 미카엘 / 이 가브리엘라 / 이 글리첼리오
이 베드로 / 임 사무엘 / 전 바르토로메오 / 전 베로니카
정 비아 / 조 마리아막달레나 / 지 안젤라 / 최 플로라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임희림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월	07:00, 18:00		
평일미사	화-금	07:00, 18:00, 19: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